



“어려운 시기에 업계를 떠나게 되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인쇄영업인들이 대표적인 수주 산업인 인쇄업에 다시금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외길 40년. 삼화인쇄 영업부 안응삼 전무가 지난 6월31일 정년 퇴임식을 가지고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지난 1963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미술에 잠시 몸담았다가 1964년 삼화인쇄 영업부에 입사한 그는 40년을 삼화인쇄 한 곳에만 적을 둔 영원한 삼화인이었으며, 인쇄영업 및 생산진행의 과학화, 경영합리화, 품질향상, 적정요금 및 생산성 향상 등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이같은 공로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안응삼 전 삼화인쇄 전무를 만나 인쇄 영업 외길 40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쇄영업 대부 업계 떠나다

40년 외길, 안응삼 삼화인쇄 전무 퇴임

△40여 년을 인쇄영업이라는 외길을 걸어오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소회부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인쇄분야 특히 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영업분야에서 40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척이나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오늘이 자리가 가능하도록 도와 준 회사와 영업부 직원,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도 삼화인쇄와 저를 끝까지 믿어준 거래처 관계자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업계에 입문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한 63년 당시만 해도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얻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 대학 선배의 권유로 인쇄업계에 첫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인쇄'를 알고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영업분야에서 중사하시는 동안 특별한 철학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첫발을 들여놓은 동기가 자발적인 입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 자신이 인쇄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을 뿐더러 애정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계에 종사하면서 점차 우리 선조들이 화려하게 꽃 피웠던 인쇄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아울러 입사 당시만 해도 낙후되었던 인쇄업계에서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인쇄업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초창기와 오늘날의 인쇄를 비교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격세지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인쇄업계의 발전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초창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이지요. 어디 인쇄물 수출을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하지만 삼화인쇄만 보더라도 작년에 미국의 일류 자동차 회사의 인쇄물을 수주하였습니다. 참으로 짧은 시간에 이룩한 놀라운 발전입니다.

△업계실무간사회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시는 등 영업분야의 대부로 통하셨습니다. 업계 공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동백회 실무회의 회장과 서울조합 상업인쇄부 총무간사를 역임하면서 나름대로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유창준 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안응삼 전무(왼쪽)

글쎄요. 특별히 생각나는 업체나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란 게 계약 하나에 만족하고 사는 직종이 아니고 하나의 계약이 성사되면 또 하나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무엇을 추억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인쇄업계, 특히 영업분야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시급한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과당경쟁입니다. 과거에 비해 재료비는 몇 십 배가 올랐는데도 인쇄 단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같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 만 쫓아갔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업에 대한 유혹은 없으셨는지요?

왜요. 인간이다 보니깐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일전에 국민은행에 납품할 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천에 옮길 순 없었습니다. 회사가 날 위해 해준 게 너무 많았어요. 그야말로 저는 삼화인쇄에 큰 빚을 진 셈인데 나 몰라라 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순 없었지요.

△40년을 같이 한 삼화인쇄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삼화는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업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인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향후 계획이나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40년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 둔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질 못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던 아내와 여행도 가보고 싶구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쟁 당시 떠나온 황해도 안악에 한 번 가봤으면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후배 인쇄인과 영업담당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업은 그야말로 외로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항상 자신의 내실을 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보를 선점해야만 앞서가는 영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기자)